

“과일 하나 사기도 힘들다”... 연말 서민들 ‘시름’

**여름 폭염 여파 겨울까지 영향
딸기·감귤값 평년대비 40% 올라
원자재 상승에 가공식품도 인상
정부 “과일 생산·유통 관리 강화”**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 여파가 겨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겨울철 인기 과일인 딸기와 감귤의 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도 이 시기 이후로 인한 카카오 등 국제 원료 가격 부담으로 가공식품 가격을 줄인상해 가정에서 간식으로 먹기 좋은 과일, 과자 하나 구매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광주지역 감귤(노지) M과 등급 10개 소매 가격은 4147원으로, 평년 가격인 2901원과 비교해 무려 42.95% 높았다.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을 의미한다. 또 전월(4082원)과 비교하면 1.59%, 지난해(3853원)와 비교하면 7.63% 인상됐다.

12월 중순 4400원대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딸기도 귀한 몸이 됐다. 지난 20일 기준 광주지역 딸기 상품 등급 100g 소매 가격은 3033원으로 지난해인 2230원과 비교해 36.01%, 평년과 비교하면 49.12% 올랐다. 500g짜리 딸기 한 팩을 집어들면 1만5000원이 넘어가는 셈이다. 지난 20일 기준 광주지역 삼겹살 소매 가격이 100g당 2606원인 점을 감안하면 삼겹살 한 근 가격을 넘어서게 된다.

이처럼 겨울철 과일값이 급등한 것은 지난여름 유난히 길었던 폭염 여파 탓으로 추정된다. 딸기의 경우 고온으로 정식(아주심기) 시기가 늦춰지고 초기 생육이 지연되면서 출하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폭설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부진했다. 겨울철 인기 과일로 꼽혀 수요가 늘고 있지만 초기물량 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 딸기값이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다만 이달 들어서는 작황이 회복되고 있다.

감귤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껍질이 벌어지고 터지는 ‘열과’ 피해가 컸다. 지난 10월에는 고온이 지속되고 강우가 잦아 병충해가 늘었으며, 열대야로 노랗게 착색되지 않는 감귤도 많아졌다. 재배면적이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탓도 있다. 한 농촌경제연구원 따르면 올해 노지 온주(감귤)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1.8% 감소했다. 농경연은 착색 부진과 파배율 증가 등으로 이달 노지 온주 출하량이 전년(12만4300톤) 대비 8.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시기 이후 제철 과일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가공식품 가격도 줄인상 되고 있다. 코코아, 커피, 팥 등 국제 원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가 원화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 가격이 더 오르면서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진 것이다.

오리온은 지난 1일부터 ‘초코송이’, ‘마켓오 브라우니’ 등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다. 가격 인상 대상은 카카오 등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의 사용 비중이 높아 이익률이 급감한 제품이다. 해태

제과도 ‘홈런볼’, ‘자유시간’ 등 10개 제품 가격을 평균 8.6% 올렸다. 앞서 동서식품은 지난달 15일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커피음료 등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8.9% 인상했고 롯데웰푸드는 지난 6월 ‘가나초콜릿’ 등 17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2% 인상한 바 있다. 동아오츠카는 내년 1월 1일부터 ‘포카리스웨트’ 등 자사 음료 제품 가격을 평균 6.3% 인상할 계획이다.

연말대목 식품 가격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된 소비자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마트에서 만난 주부 임모(61)씨는 “연말에는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할 일이 많은데, 아이들이 먹을 만한 과일 가격이 1만원을 우습게 넘어가니 장바구니 부담이 매우 크다”며 “최대한 지출을 아끼기 위해 노점을 이용하거나 할인 행사 등을 알아보고 있다. 향후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데다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으니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생

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지속 강화해 과일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감귤은 제주도에서 착색도 기준을 완화하고 만감류의 무게 기준을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중 유통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 할인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중이다. 딸기는 12월 들어 작황이 회복되면서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딸기 소비도 늘어나고 있어 평년보다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식품업계는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주요 원료 할당관세 운영, 원료 구입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나다운기자 dawoon.na@jnilbo.com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개시

현대자동차가 내년 초 출시 예정인 ‘디 올 뉴 팰리세이드(The all-new PALISADE, 이하 팰리세이드)’의 사전예약을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다.

현대차의 플래그십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는 지난 2018년 11월 첫 출시 이후 6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로 시선을 사로잡는 독보적인 캐릭터와 넉넉한 공간성을 바탕으로 국내 대형 SUV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해왔다.

팰리세이드의 고급스럽게 진보한 신규 디자인은 웅장하고 대담한 인상, 수직적인 주간주행등(DRL)서부터 시작되는 정체성을 과감하게 재해석해 시선을 사로

잡는 압도적 존재감을 갖춰냈으며, 한층 넉넉해진 실내의 고객을 배려하는 공간으로 마치 내 집과 같이 아늑하고 세심하게 꾸몄다.

이와 함께 △넓어진 제원을 바탕으로 극대화된 공간활용성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초 적용 △승차감 및 정숙성 개선 △다채로운 첨단 안전·편의사양 탑재 등 프리미엄 플래그십 SUV에 걸맞은 고급감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플래그십다운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진일보한 팰리세이드와 함께 시장의 기대에 계속해서 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11·12호’ 선정

지역인재 양성 사회공헌 진행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11호와 12호에 대한 선정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선정식에서는 선정된 청소년과 가족을 본점에 초청해 각각 후원금 300만원과 함께 후원용품 등 재능 증진을 위한 선물을 직접 전달하며 꿈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정진하는 지역 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광주은행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으로 학업 및 예체능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준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 진학까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선정된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청소년 총 12명은 학업 및 예체능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신과 같이 어려운 형편의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까지 펼쳐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에 11호로 선정된 청소년은 어려운 가정형편의 조부모 위탁 아동으로 우

수한 학업성과 리더십을 가진 장래가 촉망되는 학습 분야 인재이며, 12호로 선정된 청소년은 한부모가정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메이크업아티스트를 꿈꾸며 다수 대회 수상 이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예체능 분야 인재다. 광주은행은 두 청소년을 2024년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로 선정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기간까지 매년 ‘학습지원금’과 ‘예체능 지원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제 1151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2 3 9 15 27 29	8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16억2050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4501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37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정의선, 양궁협회장 6선... ‘金빛 질주 이어간다’

**선거운영위 만장일치 추대
2005년부터 6연속 회장 연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제14대 대한양궁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22일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선거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정의선 회장을 제14대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추대, 6연속 대한양궁협회 회장을 역임하게 됐다.

정의선 회장은 내년 1월 대한양궁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협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9년 1월까지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정의선 회장이 한국양궁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협회 행정운영체계 고도화 및 재정 자립 기여 △국가대표 지원 및 우수 인재 육성 △국내 양궁 저변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양궁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정 회장이 그동안 축적된 양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양궁을 지속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해 재선 임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2005년 5월 대한양궁협회 회장 취임 이후 ‘공정, 투명, 탁월’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지연, 학연 등 파벌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선수 발탁이 전무하며, 국가대표는 기존의 성적이나 명성은 배제한 채 철저하게 경쟁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제14대 대한양궁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현대차그룹 제공

을 거쳐 현재의 성적에 기반해서만 선발된다. 코칭스태프도 공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등용되고 있다.

또 양궁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초등부에 해당하는 유소년 대표 선수단을 신설해 장비와 훈련을 지원하고, 일선 초등학교 양궁장비와 중학교 장비 일부를 무상지원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소년-꿈나무-후보선수-상비군-국가대표에 이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정의선 회장은 양궁 선수들의 훈련 및 실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의 연구개발 역량과 첨단기술을 훈련장비 및 훈련기법 개발에 본격 적용해 왔다.

2024년 파리올림픽 대비 △선수과 일

대일 대결을 펼치며 경기 감각 향상을 돕는 ‘개인 훈련용 슈팅로봇’ △슈팅 자세를 정밀 분석해 완벽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야외 훈련용 다중카메라’ △직사광선을 반사하고 복사에너지 방출을 극대화하는 신소재를 개발해 적용한 ‘복사냉각 모자’ △3D 프린터로 개별 선수의 손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작한 ‘선수 맞춤형 그립’ 등 다양한 훈련용 및 실전용 장비를 전폭 지원했다.

이같은 전폭적 지원 아래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압도적 기량으로 여자 단체전 10연패, 남자 단체전 3연패, 혼성 단체전 2연패 쾌거를 이룩하고, 남·녀 개인전 금메달 등 세계 양궁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 5개를 획득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상의-광주경총, 공동 신년인사회 개최

내년 1월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경영자총협회와 함께 2025년 1월 3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광주·전남 경제계 공동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 경제계와 경영계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화

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이를 기점으로 지역의 분야별 기관·단체장과 관계자들이 모여 새해 인사와 더불어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앞으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가는 취지로 양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행사이다.

행사는 오전 8시부터 떡국 조찬을 시작으로 강기정 시장의 ‘2025년 광주시정 방향’이라는 특별강의가 진행된 뒤 9시부터

참석자 상호간 약속과 인사를 나누는 신년 하례가 이어지며, 이후 공동 주최기관과 지자체장의 신년사 및 건배제의 등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년인사회 참가를 희망할 경우, 양 기관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팩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한 뒤 행사 당일 현장에서 명찰을 수령하면 된다. 관련문의는 광주상공회의소(062-350-5831-6) 또는 광주경영자총협회(062-654-3425)로 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